

나루사와 얼음 동굴

나루사와 얼음 동굴은 아오키가하라 주카이 숲의 지하 21m 깊이까지 내려가는 가파른 수혈형 동굴로 국도 139 호선을 따라 노선 버스로도 쉽게 갈 수 있는 장소에 있습니다. 지구과학적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이 동굴은 용암류가 흘러나왔을 때 표면은 공기에 닿아 먼저 굳고 온도가 더디게 떨어지는 내부는 그대로 계속 흐르다가 지하에 큰 구멍이 형성된 것입니다. 메인 경로에는 많은 수혈이 갈라져 있는데 특히 섬뜩하고 불길한 느낌이 들어서 '지고쿠아나 (지옥 구멍)'라 불리는 굴을 비롯해 아직 많은 굴이 조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나루사와 얼음 동굴은 두 개의 링 모양 동굴이 서로 연결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굴 안을 한 바퀴 도는 루트의 길이는 약 150m로 10~15분이면 걸을 수 있습니다. 계단은 내려가는 것이 91 단, 올라가는 것이 101 단으로 되어 있으며 얼음 때문에 통로가 미끄러울 수 있어서 잘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을 신고 방문해야 합니다. 또한 천장의 가장 낮은 곳은 고작 91cm에 불과하므로 입구에서 헬멧을 빌리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나루사와 얼음 동굴 가장 깊은 곳의 온도는 일년 내내 영하로 유지됩니다. 이곳은 오랫동안 현지 주민들에게 위험해서 피해야 하는 장소로 여겨졌지만 20세기 초기부터는 천연 냉장고로서 얼음이나 종자의 보존에 사용되었습니다. 동굴 내부에 있는 경로에서는 과거의 얼음 저장고를 재현한 반짝반짝 빛나는 '얼음벽'이나 표면이 얼어붙은 종유석을 볼 수 있습니다.